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樹木等到花)

총무원장 자승스님 박대통령 만나 경구 인용해 시국관련 '지혜' 전달해 "현 사회 울림주기에 충분한 가르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교 경전의 경구를 인용해 조언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최근 국정 현안 관련해 면담의 자리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시국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서둘러 민생안정과 국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수목등도화(樹木等到花) 사제능결과(謝才能結果) 강수류도사(江水流到舍) 강재능입해(江才能入海)'라는 불교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로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과 박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진 직후, 관련 기사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현 시국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서둘러 민생안정과 국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 사신제공=청와대

시간 뉴스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같은 날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종교지도자로서 총무원장 스님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목이 쏠렸고, 직설적인 언설이 아닌 불교적인 의미를 담아 전달했다는 점에서 종교지도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불교계 또한 불교지도자로서 위외에

어울리는 가르침을 내렸다고 반겼다. 총무원장 스님은 프랑스 순방 직후부터 승가와 재가를 막론한 불교지도자를 비롯해 정치지도자, 시민사회단체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교포럼 집행위원인 소중섭 씨는 "종교지도자로서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히 말씀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더 내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경구를 인용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원 법원스님은 "종교계에서 거친 표현을 쓰거나 정치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버릴 줄 알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대영 기자 hong12@i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자비

우리 은사 스님은 생전에 구병시식을 참 많이 모셨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재를 모시고는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재가 너무 많아 새벽까지 모신 적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피곤하실 텐데도 하나의 내색 없이 재에 동참해 증명해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한번은 정신이 산만한 여자 분이 어머니와 함께 구병시식을 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날뛰는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사 스님께 가서 법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자상하게 웃으시며 법당에서 그렇게 소리하면 되겠는가, 하며 조용히 머리를 만져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구 날뛰던 여자는 아주 순한 양처럼 다소곳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 장면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자 시절, 나는 그런 사람들 서너 명과 함께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는 언제나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싸우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행자인 내게 절의 소임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잡신이 들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세력이 비슷한 잡신들은 서로 다투지만 세력이 차이가 나면 그 때는 짝짝 못하는 거지." 나는 그때 비로소 그들의 싸움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사 스님께 여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절에는 좀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까?" 은사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거두지 않으면 저들이 어디에 가겠는가." 스님은 스스로 모 든 아픈 사람들의 등지가 되려고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등지로 존재하셨던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와 자비로운 손길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문득 은사 스님이 구병시식 하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최대민이라는 사람이 새삼 세상에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를 생전에 만난 것이라면 그에게도 예의 부드러운 미소와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 열매

범종단 역점사업 총본산성역화 동참

직지사 5000만원 '기탁'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종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본산성역화 건립발사에 힘을 보탤다.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사진)은 지난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총본산성역화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흥선스님은 "종단의 숙원사업인 성역화 건립발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성역화 발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입기가 끝나면서까지 보여준 책임성 있는 모습은 많은 중도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며 "부지 매입이 예상보다 다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총본산 성역화 발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社告

2017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 **응모기간**: 2016년 11월 7일(월) ~ 12월 8일(목)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 평론 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 동화 부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 시·시조 부문(6편 이내)
- **상 금**
 - 단편소설 500만원 - 평론 300만원
 - 동화 300만원 - 시·시조 300만원
-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기적' 선정
-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 발표**: 2017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 수 처**: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에담당
- **유의사항**(상세한 내용 본지 홈페이지 참조)
 -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 단, 해외에서 응모하는 분들에 한해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접수 시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rl22@ibulgyo.com)
- **문 의**: (02)730-4489(신춘문에 담당)

마음치유학교 헤민스님

스님 위한 힐링스테이 연다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지친 스님들의 심신은 어디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해법을 제시하는 뜻깊은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멘토로 꼽히는 헤민스님이 운영하는 마음치유학교와 인제 백담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4일까지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에서 '스님을 위한 힐링스테이'를 연다.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힐링스테이는 마음치유학교장 헤민스님과 백담사 연수원장 백겨스님을 비롯해 상담심리 전문가 윤성욱 마음치유학교 교감, 이다감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사사, 신승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마음치유를 주제로 강의한다. 헤민스님은 "이번 힐링스테이는 출가 후 현실과 이상 사이에 대한 고민, 은사 스님이나 도반, 신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힘들, 스님으로써 어렵고 힘들었던 점들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잦대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이해 시간을 가짐으로 먼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중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종단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백담사와 마음치유학교가 속식, 강의 등을 지원하는 이번 힐링스테이는 백담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baekdamsa.templestay.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발사 기금모연

- ARS모연: 060-700-1027
- 문자모연: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농협 301-0160-9713-71 (계미본교주회사무실)
- 모연문의: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발사 추진위원회

2017학년도

전통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승가교육의 혁신도량



www.donghaksa.or.kr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응시자격: 사미니 수계재(행차교육 52기까지)
-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전학년 편입생 ○○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증명사진(3×4) 2매
- 원서교부: 동학사 중무소, 동학사 홈페이지(www.donghaksa.or.kr)
- 원서마감: 2017년 1월 16일(월요일) 면접당일 접수가능(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모집기간: 2017년 3월 6일(추가모집)
- 전형일시: **도착일** 2017년 1월 16일 (음력12.19)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내사
면접일 2017년 1월 17일 (음력12.20) 화요일 오전 8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
- 특 전 : 장학금 지급 / 입학금 면제 / 전 학년 교재 제공 / 졸업여행비 지원 / 병원비 지원 / 성지순례비 지원
- ※ 교육원 표준교과과정 실시 ※ 동학사 특화교육: 요가, 시·문예, 서예 등
- ☞ 1월 16일, 동학사주자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시~4시까지)

동학사승가대학장 보련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학림)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스님
- 모집인원: 전문과정 ○○명(상주 및 통학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승려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승가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행이력서 1부
 - 증명사진(3×4) 2매
- 원서교부: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중무소, 홈페이지(www.donghaksa.or.kr)
- 원서마감: 2017년 1월 16일(음 12월 19일) (동안거 해제 후 2차 방부 가능)
- 전형일시: 2017년 1월 17일(음 12월 20일) 오후 2시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기 타 : 학업기간 중 개인연구비 지원
- 특 전 : 학업기간중 연구비 지원 / 소임시 장학금 혜택 / 전문과정 2년 졸업후 조교수 자격 부여 / 졸업여행비 지원 / 성지순례비 지원, 종단 장학금 및 전문승사의 지원 자격 / 3급 승가교사 응시자격 등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장 일초